“오분자기 되살린다” 22만 마리 마을어장 방류

도내 생산량 1995년 159t에서 2018년 1t 수준으로 급감
올해 총 36만 마리 방류… 해녀 소득 기반 강화 기대

자취를 감춰가는 제주 오분자기 자원을 되살리기 위해 제주도가 어린 오분자기 22만 마리를 마을어장에 방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3일부터 약 2주간 도내 마을어장 8곳에 어린 오분자기 22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3일 밝혔다.

오분자기는 제주 향토음식인 ‘오분자기 뚝배기’의 주재료로 알려지며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인기 해산물이다.

이날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오분자기 생산량은 1995년 159t(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하다 2018년에는 1톤 수준까지 줄었다. 하지만 최근 방류 사업 등을 통해 도내 오분자기의 연간 생산량은 약 2~3t 수준까지 회복됐다.

도는 방류를 통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2001년부터 오분자기 종자 방류를 시작했다. 2010년부터는 제주도가 종자를 매입해 방류하는 사업으로도 확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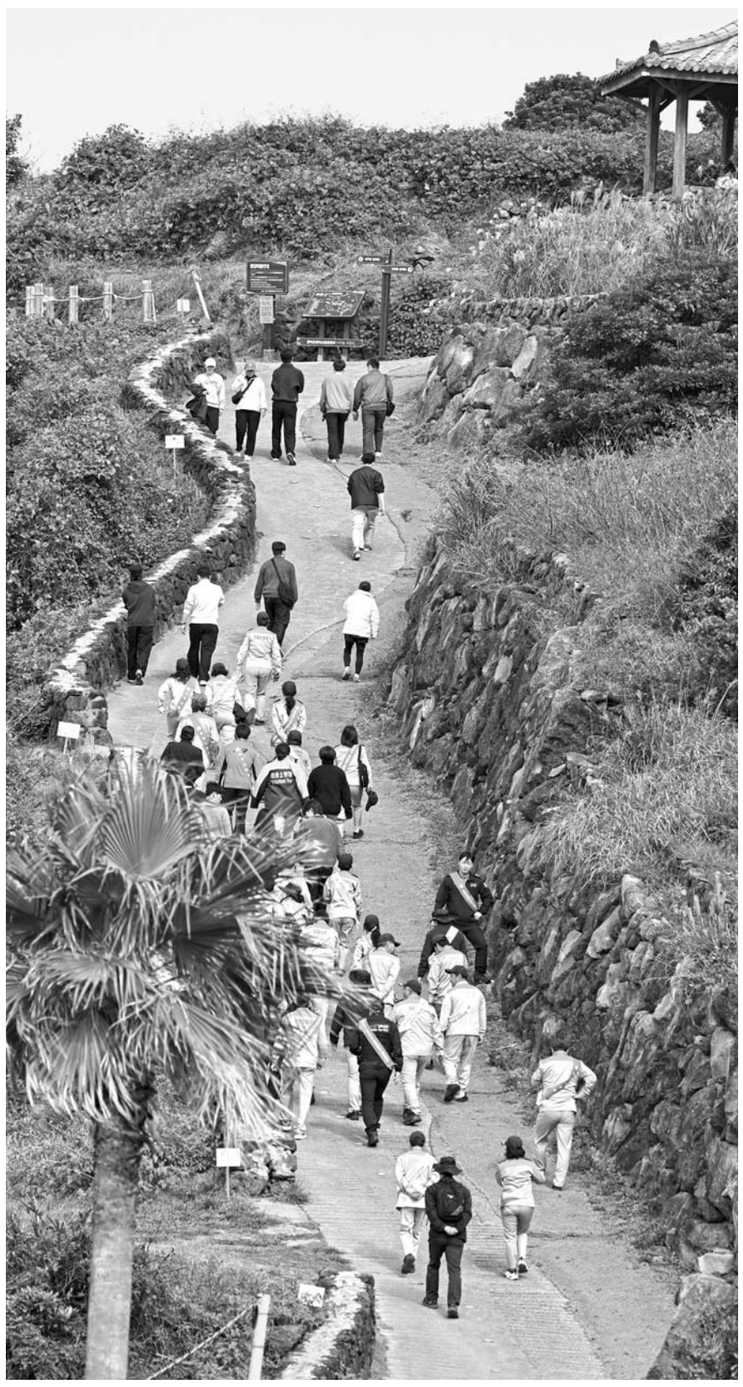
이번에 방류하는 오분자기는 지난해 7월 수정란을 생산해 연구원에서 기른 개체다. 상반기에 방류한 14만 마리를 포함하면 올해 방류 규모는 총 36만 마리에 이른다. 연구원은 지속적으로 종자를 방류한 마을어장에서 생산량 증가를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연구원은 고수온 적응력이 높고 비교적 얕은 수심에 서식하는 오분자기를 기후변화와 해녀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을어장 자원조성 품목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은 민간에서도 오분자기 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도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정란과 초기 먹이생물인 부착규조류 원종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현장 기술지도와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강봉조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지속적인 종자 방류와 함께 자원조성 효과를 조사하고 관련 연구를 이어가겠다”며 “이를 통해 오분자기 자원 회복과 해녀 소득 기반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서우봉 탐방 3일 제주시 조천읍 서우봉을 찾은 사람들이 탐방로를 오르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응 본격화… 전담팀 가동

안전건강실장 단장으로 6명 구성… 홍보·민원 대응 논의
지정 전후 홍보와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대응 전담팀(TF)’ 회의를 열고 도민 안내와 관계기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팀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지정 전후 홍보 방안과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주요 문의·민원 대응 방안 등을 협의했다.

전담팀은 안전건강실장을 단장으로 홍보 담당 부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정 신청 병원 관계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필요성, 기대효과와 지정 이후 달라지는 의료이용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도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우선 중증·고난도 질환의 도내 진료역량 강화와 도외 진료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등 지정의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진료의뢰서 준비, 진료비 본인부담 변화, 기존 환자와 예약 환자의 계속 진료 방법 등 실제 병원 이용에 필요한 정보도 사전에 안내한다.

이와 함께 가까운 의원의 일상적인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 병원·종합병원의 전문진료와 입원치료, 상급종합병원의 중증·고난도 치료 등 의료기관별 역할과 환자 의뢰·회송 체계에 대한 도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도 개선으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의료이용 변화에 따른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사전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소비 심백’ 지역상권 활기
제주시 올 3분기 9억원 돌파
영수증 1만9580매 집계

제주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2026 소비 심백(心百) 캠페인’이 3분기(7~9월)에만 9억원의 소비를 이끌어내며 골목상권 회복에 힘을 보탰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기간에 이뤄진 캠페인 참여 소비금액은 9억원, 영수증 수는 1만9580매에 달했다. 영수증 1장당 평균 길이를 10㎝로 환산하면 총 1.96㎞에 이르는 규모다.

소비 활동은 총 1501회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골목형상점가 704회, 빅데이터 기반 매출액 하위 지역(봉개동·용담1동·한경면) 572회, 전통시장(서문공설시장, 보성시장 등 9개소) 225회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캠페인 활성화에 앞장선 우수부서 격려를 위해 지난 2일 ‘2026년 3분기 우수부서 시상식’도 진행했다. 최우수부서에는 디지털혁신과와 일도2동이 선정됐고, 우수부서에는 기초생활보장과와 봉개동이 이름을 올렸다. 장려부서에는 통합돌봄과, 제주아트센터, 외도동, 오라동이 각각 선정됐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시, 새별오름 푸드트럭 영업자 공모
13일까지 접수… 5대 모집

제주시는 새별오름을 찾는 방문객에게 먹거리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푸드트럭 영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5대이며 우선 선정 3대(청년·수급자·장애인)와 일반 2대다. 영업 기간은 2027년 1월 18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제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운데 푸드트럭 영업 신고가 가능한 자이다. 다만 도내 식품 관련 영업자와 다회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 식품안전과(064-728-2641)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제출 서류 양식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오는 19일 공개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백금탁기자

서귀포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274명 입국
내년 7월까지 최장 8개월간 감귤·월동채소 수확·선별

본격적인 감귤과 월동채소 수확철을 앞둬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274명이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효돈농협 50명, 서귀포농협 47명, 제주감귤농협 40명, 제주위미농협 60명, 중문농협 30명, 대정농협 47명 등 총 6개 운영 주체를 통해 현장에 배치된다. 대부분 감귤 수확·선별작업에 나서며 대정농협 계절근로자는 월동채소 수확 등에 투입된다.

시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달부터 2027년 7월까지 최장 8개월간 운영하며,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 농가의 인력난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현장 투입에 앞서 농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농교육과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 장원농장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큘고리!



쉽게 높이조절되는 귤고리 귤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귤고리’가 있습니다!

귤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가능
2. 귤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귤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귤고리 작업세트 구성


귤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귤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